

기업의 디자인 전략: 디자인 경영

1999

디자인진흥원사

-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
(법률 제5773호)
-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 뉴밀레니엄
(최고경영자) 과정 신설
- 제1차 디자인경영포럼 개최
- KIDP 이순인 본부장 ICSID
부회장 피선
-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도입
- 제1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 개최
(최초 대통령 주재 진흥대회,
청와대 영빈관)
- 한국 일례니엄상품(KMP) 선정
- TOP 디자인전문회사 선정

한국 디자인사

- 『어울림 한민족포스터대전』 개최
- 어울림 국제디자인포럼 개최
- 예술의전당 한가람 디자인미술관 개관
- 『디자인 문화비평』, 『디자인텍스트』 창간
- 『TTL』 창간
- 『조선일보』 가로쓰기 챕터
- 제1회 대한민국 컴퓨터그래픽스대전

한국 사회사

- 대한항공 전 기종 기내 금연 실시
- 하나로통신, 초고속인터넷(ADSL)
서비스 개시
- 스타벅스 국내 진출
- 대우그룹 부도

디자인 경영(Design Management)이란 ‘상품, 서비스, 조직에 디자인의 개념을 구체화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지식 경영 방안’이다. 기업의 각 부문에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고 통합하는 디자인 경영은 1920년대에 독일의 아에케(AEG)사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이후 이 개념은 1940년대 이탈리아의 올리베티를 거쳐, 최근 들어서는 세계적 기업들의 핵심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어 적용, 운영되고 있다.⁵⁹

우리나라도 1990년대 들어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의 주도로 디자인 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일찍이 1970년대부터 디자인 연구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산업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LG전자는 1990년대 초반부터 디자인을 통한 기업 경영을 시도했으며, 삼성전자는 1996년 ‘디자인 혁명의 해’를 선포한 이후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⁶⁰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자면 1990년대 들어 점차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가격이 아닌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디자인 경영은 점차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된 것이다. 1990년대 들어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CI를 정비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재고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 경영이 국가와 산업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1999년 3월 24일 KIDP는 제1차 디자인경영포럼을 열었다. 동아일보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 행사에는 미국의 디자인 전략가 폴 쿠넬과 김영세 이노디자인 대표가 참석해 ‘애플의 아이맥 컴퓨터 창출 컨셉트 사례를 통해 본 기업의 디자인 전략’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한편 ‘디자인코리아’를 표방하며 산업자원부 주최, KIDP 주관으로 1999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에서는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시상을 통해 디자인 경영에 대한 성과를 포상했다. 디자인 경영을 실천한 우수 기업을 포상함으로써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유도하고 디자인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려는 데 시상의 목적이 있었다. 이 상은 디자인이 단순히 제품 생산 과정의 일부가 아닌 기획, 개발, 마케팅을 포함하는 경영 전반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기업들이 디자인 경영에 관심을 갖는 데 큰 자극을 주었다. 이외에도 디자인 공로 부문을 두어 디자인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포상하고, 이를 통한 사기 진작, 디자인 경쟁력의 주역인 디자이너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제1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디자인경영 부문 대상은 LG전자가, 제2회는 삼성전자가 수상했고, 조영제 서울대 교수, 박종서 현대자동차 전무 등 한국의 산업디자인이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한 디자이너들이 훈장과 표창을 받았다.

이듬해인 2000년에는 KIDP 원장으로 KAIST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이자 디자인 전문가인 정경원 박사가 공채로 선발되어 취임했다. KIDP 설립부터 30여 년간 퇴역 군장성 출신이나 정부 관료들이 원장을 맡았던 관행에서 벗어나 KIDP 역사상 최초로 디자인 전문가가 원장으로 취임한 것이다. 이어 디자인 전문가로 LG전자 부사장 출신 김철호(2003-2006) 원장이, 2018년에는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윤주현 교수가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이는 디자인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시기에 디자인 진흥에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정부와 디자인계의 요구가 일치한 결과였다.